

2024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4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정정윤			
설립년월일	2018년 6월 28일	상근직원 수	14명 핸드스피크: 0 / 핸드스피크(주): 6 수어통역(근로지원): 4/인력지원: 4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83, 3층(서교동, JH빌딩)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홈페이지	Handspeak.co.kr Handspeak.kr	모 법인명	
공익법인	N	주무관청	
조직의 설립목적			
이 단체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청각장애·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불평등(사회참여, 일자리, 교육 기회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일경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청각장애·농인등) 문화예술 관련된 교육 사업 2. 장애인(청각장애·농인등) 자립 지원 사업 3. 장애인(청각장애·농인등) 일자리 지원 사업 4. 장애인(청각장애·농인등) 관련 공연, 전시, 홍보대행 및 부대사업 5. 장애인(청각장애·농인등)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조직의 재무제표 및 수익비용 현황 (비영리+영리)

(단위 : 백만원)

		2021년(연말)	2022년(연말)	2023년(연말)
총 자산		103 (1+102)	78 (1+77)	311 (229+82)
부채		28 (0+28)	23 (0+23)	122 (12+110)
순자산	기본재산	11 (1+10)	11 (1+10)	11 (1+10)
	보통재산	64 (0+64)	44 (0+44)	255 (217+38)
수익 총계		270 (67+203)	439 (49+390)	755 (401+354)
비용 총계		214 (68+146)	459 (50+409)	459 (184+436)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수어 문화예술콘텐츠 기획/제작	수어뮤지컬/연극, 수어노래/랩,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들에게 농문화와 수어의 예술성을 전함
농인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	끼와 재능있는 농인 청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여 아티스트를 육성함
농예술 아카데미 (수어예술 어휘연구)	농인·청각장애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환경을 만들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수어콘텐츠 #농인아티스트 #농예술교육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1. 청각장애·농인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문화빈곤'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곤' 해야 할까요?

청각장애·농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은 신체적 차원을 넘어 긍정적 자기 이미지 형성, 자기표현과 적극적 대인관계 등의 효과를 가지며, 정체성 확인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수어를 '공용어'로 지정했음에도 수어 대중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공공시설 등 주요 편의·관람 시설에 수어 안내 콘텐츠는 관심 밖 사항이며, 농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배우려 해도 전문적인 공적 시스템이 없으며, 민간 차원의 노력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렇게 청각장애·농인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사회참여·일자리·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대인관계 기피, 문화적 빈곤이 계속해 발생 되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있다.

국내 청각장애 등록 수는 435,000명이며(2021,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은 작품 창작과 발표기회, 연습공간 부족 등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1.1%에 불과하며, 장애인들은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의 기회 불균형으로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왔으며, 문화예술·서비스업 분야 일자리를 매우 희망하지만 기대감은 매우 낮다.

2. 한국수어로 교육 받을 농인의 권리

오디즘(Audism) : 청인이 우월하다고 믿고 농인에게 청인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

"나는 춤을 좋아해서 무용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2시간 수업을 하면, 교수님께서 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더 열심히해야 된다"라는 답 정도였다.

오디즘으로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농인들이 없도록,

이 사회에 작은 배려들이 생겨나길 바란다." -Handspeak 아티스트-

한국수화언어법 1장 제 2조 기본 이념에서는 농인이 한국수어로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농교육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음성언어를 원활히 사용해서 주류사회(청인사회)에 속해야한다”는 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기본교육법의 교육목표와 달리 농교육의 실상은 이와 아주 다르다. 농교육의 문제로 많은 농인은 이미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농학생의 낮은 학업성취와 낮은 사회 적응력으로 이어진다.

3. ‘농’ 예술교육의 중요성

“나는 수어로 배우고 싶어요”

2016년 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3년이 지난 2019년 8월 23일에 열린 “정체성을 상실한 농교육 농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에서 서울농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모여서 외친 구호이다. 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본적인 교육권도 박탈당한 농인에게 예술 교육과 예술 기회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어떤 음악 수업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방에 가사가 표시된 듯한 화면을 바라보며 뭐라도 불러보라는 강요를 받는다. 여기 어디에도 음악은 없고 예술은 없었다. 농인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 다만 농문화로 농인의 방식이라는 전제가 있어야한다.

“핸드스피크 아카데미에서는 청인 강사가 농문화를 일부 이해하지 못한채
수업에서 실수를 하면 학생들이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었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생이 충분히 가치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수업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되었고 강사와 함께 만들수 있었어요.”

- 참여자 P씨-

“한국수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저에게
한국어로 된 “시(詩)”는 굉장히 어렵고 싫은 분야였죠.

하지만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가 너무 쉽고 재미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 참여자 K씨-

이중언어·이중문화 패러다임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핸드스피크 농예술 아카데미는 강사가 농문화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상이 농학생인 것을 염두한 상태에서 수업을 준비했다. 청인 강사인 경우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는데 해당 분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문수어통역

사를 배치했다. 이중언어·이중문화 패러다임에 맞춰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가능한 것을 집중한 것만으로 12년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이 더 많았다고 말한 수료자의 너스레는 우리를 웃게 했지만 동시에 고민하게 했다.

4. 예술 전문 수어통역사 및 예술수어 어휘의 필요성

“우리도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지난 2012년 대전에 있는 청인(Hearing)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당시) 농학생이 올린 한국수어 영상 게시글의 일부이다.

청인학교의 청인교사와 청인학생으로 이루어진 학급에 농학생 두명이 있다보니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었다.(사실 이것도 흔한 지원은 아니다. 대부분의 농학생은 아무 지원 없이 청인학급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 하지만 배치된 수어통역사는 수업의 내용을 충분히 통역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농학생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학교 측은 수어통역사의 말에만 의존해 농학생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고 수업을 쫓아가지 못하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선생님으로부터 혼나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농학생은 그 학급에서 소외되었다.

문제는 수어통역사의 통역실력도 문제가 맞지만 더 나아가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농인에게 정보 접근의 모든 기회를 주었다고 착각하는데 있다. 이미 모든 교육현장이 청인을 위해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수업의 흐름이 청인 학생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통역사 배치만으로 농인이 그곳에서 온전히 학생으로 있기는 불가능하다. 농인학생이 그 교육현장의 주인이어야 하며 언제나 원하면 피드백을 강사와 수어통역사에게 직접 줄 수 있어야 한다. 강사는 교육대상을 농인 학생으로 명확하게 하고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수어통역사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계속해서 사전회의와 스터디 및 레퍼런스 수집으로 최상의 통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농인 예술 아카데미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시 말해 농인 예술 아카데미의 주체는 농인이며 그곳의 강사는 자신의 교육 분야 및 농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농예술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에 없던 예술분야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스터디 및 클래스를 개설해 꾸준히 발전하는 수어통역사를 길러낸다.** 농인 예술 아카데미는 이중언어·이중문화를 기반으로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때 우리는 청인중심으로 농문화를 배제한채 만든 한국수어사전의 무의미한 ‘것’들이 아닌 농인 예술 문화에서 생성되고 정착되고 때로는 삭제되는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 갈 것이고 이 안에서 농인예술 수어 어휘 개발 및 사전이 제작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4. 농인아티스트가 수어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농사회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개념보다는 “농인/청인”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비장애인으로 이야기한다면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5%, 비장애인은 95%이다. 하지만 농인/청인으로 이야기한다면 농인은 전체인구의 0.7%, 청인은 99.3이다.(2020년 기준) 이 0.7%도 제1언어를 한국수어 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 합한 것이다. 99.3%에 속하는 수어아티스트가 아무리 농문화를 이해하고 안다고 해도 과연 0.7%의 경험과 생각 문화를 대변하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일본 식당에서 김치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김치의 본 발음이 ‘기무치’인 줄 아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수어아티스트가 아닌 농인아티스트여야 하는 이유이다. 농문화와 수어를 모르는 수어아티스트의 수어 소비는 농인을 불편하게 한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언어가 아닌데 청인은 이를 통해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것이다.

수어 문화예술 콘텐츠는 농인 문화와 농인 예술 안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수어아티스트가 아닌 농인아티스트의 삶에서 기획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왜냐면,

“수어는 농인이고 농인은 수어이니깐,”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프레임워크 소개

핸드스피크는 농인 청년들이 가진 끼와 재능을 '수어'와 '예술'로 세상과 소통을 이어가는 농인 문화예술 단체로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하여 청각장애·농인의 문화예술 활동 소외와 참여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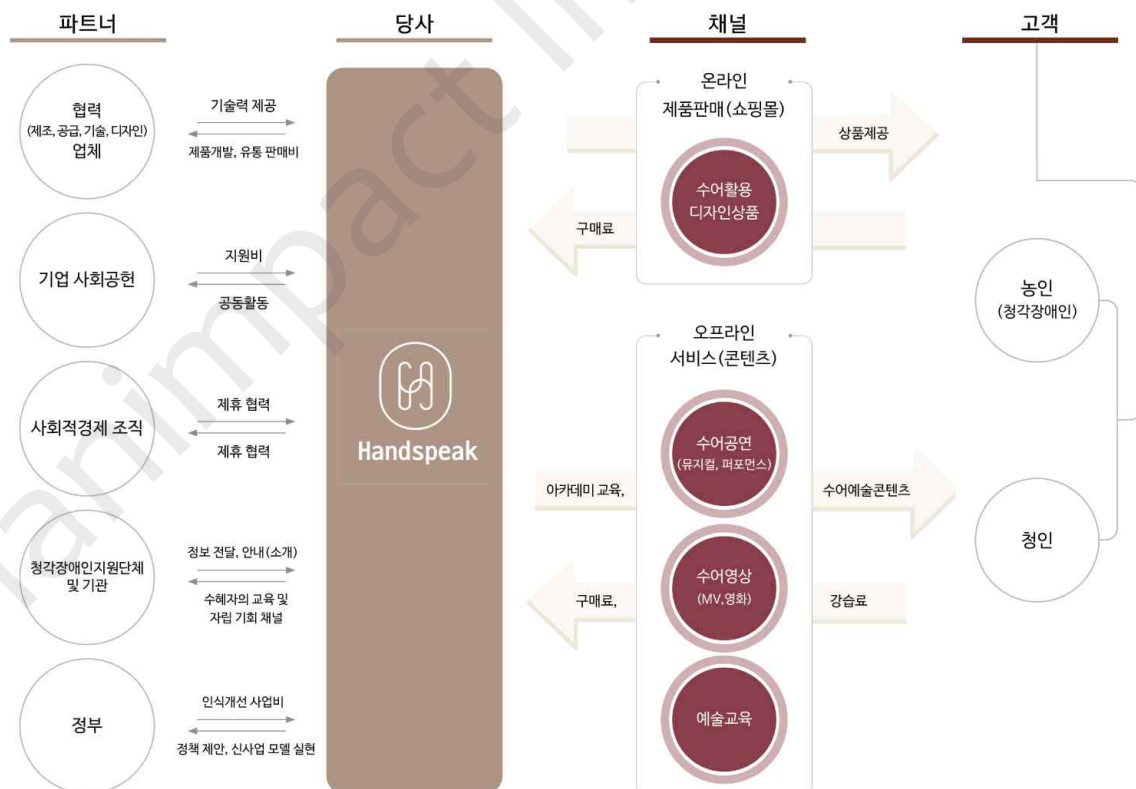
1) 핵심 타겟 집단

- 수어가 제1언어인 농인
- 수어 활용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기업/기관/단체/개인
-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맞춰 지원 정책을 펼칠 정부

2) 확장 타겟 집단

- 수어 교육과 농 문화, 농 예술에 관심 있는 비장애인

2.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그림 1] 핸드스피크 비즈니스 모델

1) 수어 문화예술콘텐츠 기획/제작

농인 아티스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기획/제작하는 수어뮤지컬/연극, 수어랩/노래, 퍼포먼스, 단편영화, 미술/디자인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농문화와 수어의 예술성을 전함

2) 농인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

끼와 재능있는 농인 청년들을 오디션을 통해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여 아티스트를 육성

3) 농예술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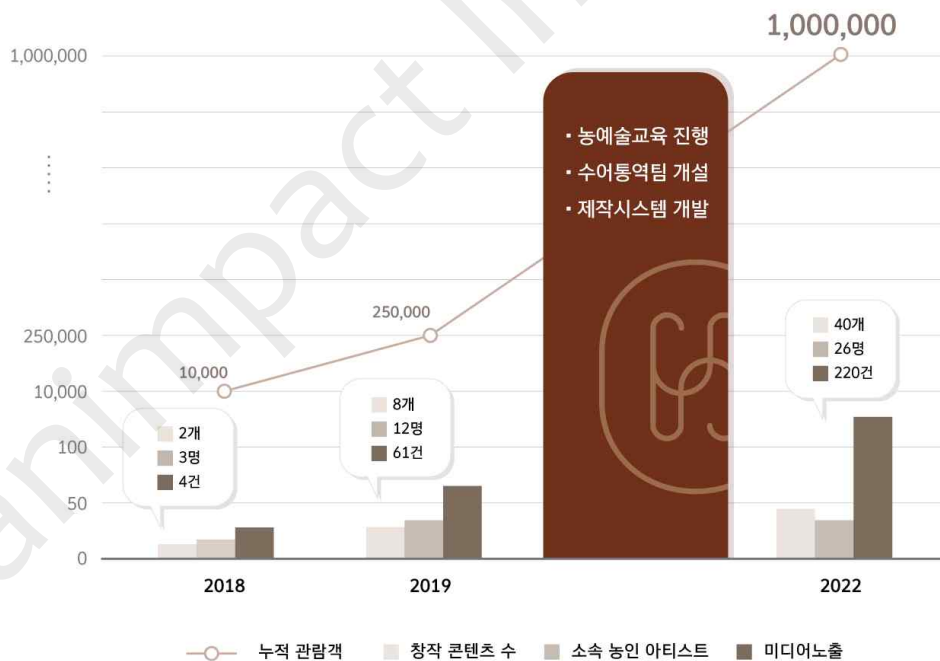
농인·청각장애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수어예술 어휘를 연구·개발하여 농예술 교육 환경의 기반을 다짐

- 지속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위해 필요한 행동양식, 마케팅 방법, 채널 관리

(1) 행동양식 : 농인·청각장애가 겪고 있는 문화 소외와 사회적 편견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포기를 모르는 열정으로 공익을 위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비전을 실행하려는 노력

(2) 마케팅 방법 : 소비자층 관여도 높은 SNS 활용, 관련 인적 네트워크 활용

(3) 채널 관리 : SNS 계정 관리, 기업/인적 네트워크 리스트 관리체계 운영



[그림 2] 2018-2022 핸드스피크

예술교육을 통해 농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양성하며,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일회성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핸드스피크만의 노하우가 담긴 독보적인 콘텐츠와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장한 기획·제작 역량으로 수어 문화예술의 대중성과 시장성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농인 아티스트들의 수어 문화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국내를 넘어 많은 해외 무대에 초청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실력을 이미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소셜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농인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수어, 댄스, 뮤지컬) 전문 예술교육 및 일자리 및 서비스 등 수어를 활용한 비영리/영리 전문 예술단체 및 법인이 없으며 핸드스피크가 국내 유일하다.

1. 농인 아티스트(수혜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기획/제작

핸드스피크에서 기획/제작한 수어 예술 콘텐츠인 수어랩, 수어뮤지컬, 수어연극, 수어랩, 수어뮤직비디오, 수어영화, 수어 굿즈(달력 등)은 모두 핸드스피크 만의 역량과 노하우로 만들어진 자체 기획/창작 예술품이다

2. 예술 분야 청각장애·농인 전문예술가 보유

수어 전문 통역사, 농아방송 아나운서&리포터, 사회복지사, 뮤지컬 연출, 배우, 댄스 강사, 태권도 선수, 바리스타, 헤어디자이너, 상품 개발, 전시 기획, 공연기획, 디자인 등 수어 활용 디자인 상품 개발 기획자 및 디자이너

3. 농문화를 담은 제작 시스템 개발 및 보유

농문화를 결합한 수어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함에 있어 지속가능성과 반복성을 위한 생산적인 제작 시스템 연구하고, '공연무대'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를 도입한 공연 방식으로 수어뮤지컬과 수어연극, 수어퍼포먼스 등 노하우를 담은 특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4. 농문화예술의 인간적인 경험과 인식개선

초청 공연 등의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 KaKao-카카오프로젝트 100의 <농인 아티스트와 함께 수어라차차> 프로젝트, 기아자동차 '디지털키 설명 수어버전' 영상 제작, SK SOVAC 공연 및 강연 등의 B2B 영역으로 수어콘텐츠 참여 및 관람 기회를 확장하여 보다 대중적인 경험의 기회를 마련함으로 사회적 이해를 돕고 있다

5. 국내 및 해외 농예술 네트워크

해외 공연 참가로 농인 아티스트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예술워크숍을 주최/주관하며 국내에 국한되어 있던 농 네트워크를 글로벌로 확장시켰다

6. 13년 간 농인 댄스팀으로 다져진 팀워크

청인 중심의 사회 구조는 농인 청년들의 가벼운 일상부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까지 불편함이 있음을 함께 경험하며, 농인 아티스트가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노력하고자 핸드스피크가 설립되었고 선례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도전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1. 국내 최초로 시도된 독창적인 수어 예술작품

수어랩 <손만 잡고 잘게-피노다인>, 수어연극 <사라지는 사람들>,
수어뮤지컬MV <누가 죄인인가> 등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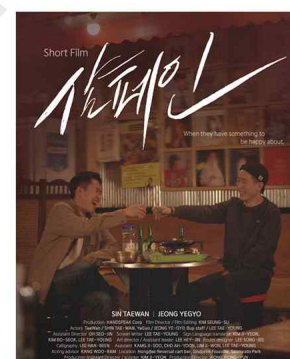
영상콘텐츠(수어MV)



디자인



단편영화



[그림 3] 수어문화예술 콘텐츠

2. 농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농인·청각장애인 청년들이 전문예술가 및 강사로 성장하고 농문화(수어)와 예술을 접목시키며
청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함



[그림 4] 농예술 교육프로그램 포스터

3. 수상 : 핸드스피크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음

- 21.11.23 제68회 온다스상(Premios Ondas,스페인) 국제경쟁TV부문 '대상'
- 21.11.17 제1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20.11.26 2020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기획재정부장관상'
- 20.08.21 제3회 장애인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대상'
- 19.06.28 제14회 '나눔연극제'_수어뮤지컬 미세먼지 / 대상, 연출상, 여자연기상

4. 예술수어 어휘 연구 및 개발

예술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의 수어가 없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분석하고 수어어휘를 개발하여 사용중

5. HTS(농인x청인 공연예술 자치규약) 작성 및 배포

농인과 청인이 함께 예술 작품을 할 때, 서로 배려하고 지켜줘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문화가 충돌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줄임으로 효율적인 제작과정이 가능해짐

6. 예술현장의 농인 접근성 서비스 요청 및 시행

정동극장, 국립극단, 세종문화회관 등 예술현장에서의 통역/자막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이후 농·청각장애 관람객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시행되었음

7.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여자연기상'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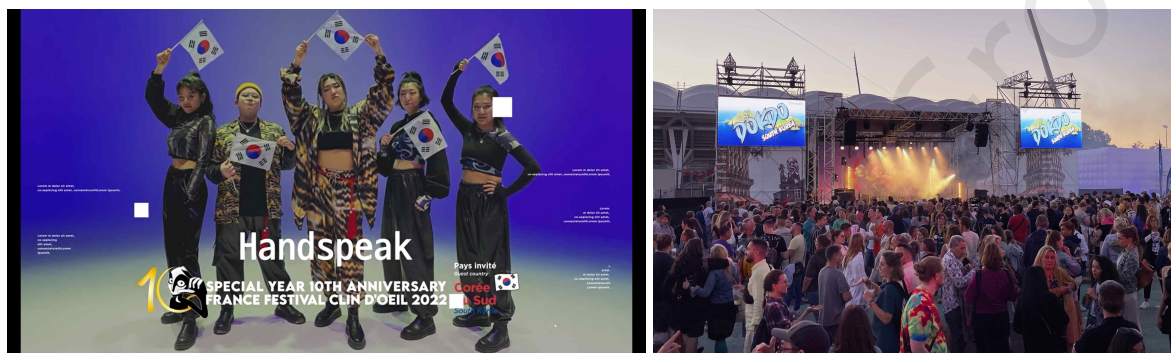
22.05.06 핸드스피크 박지영 배우, 백상예술대상 최초 농인배우로 후보에 오름

8. 22.06.30-07.30 'Festival Clin d'Oeil 2022'(프랑스) 공연

Deaf(농)라는 주제로 이뤄진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컨퍼런스가 열리며 전세계 Deaf(농)예술가들이 2년에 1번씩 모이는 페스티벌에 핸드스피크가 초청 되었고, 대한민국 주빈국으로 선정되며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 받음

"10회 페스티벌, 처음 만들어진 1회부터 스텝으로 같이 했는데,
한국팀 무대는 그동안 무대와는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소름끼쳤어요."

-프랑스 페스티벌 관계자-



[그림 5] 'Festival Clin d'Oeil 2022'(프랑스) 공연 현장

9. 정책 자문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 공연접근성 워크숍,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분야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회의 및 토론에 자문으로 참여

10.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수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시민들(소비자)에게 자주 접하게 되는 콘텐츠를 개발 및 유통 판매함으로써 수어에 대한 인지도와 매력도를 높이고 접근성과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쳐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킴

•SDGs 8.5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사회 서비스 확충,
개인 및 공동체의 복리 증진, 지역 사회 활성화

=> **핸드스피크는 청각 장애, 농인 아티스트를 고용하여
공연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 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한양대 임팩트사이언스연구센터

<문화예술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DevelopmentGoals)> 연구발표 사례 중에서

■ 제 3 장 미래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임팩트 그라운드를 통해 3년간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는다면, 어떤 요소를 해결하고 싶은가?

장애를 가졌어도 청년들은 꿈을 펼칠 기회가 필요합니다.

1. 농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

2018년 3명의 농인 아티스트와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가치를 공유하며 매년 오디션을 실시하여 함께 할 농인 청년들을 찾고 필요한 예술교육, 워크샵, 농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함께 성장했다. 그리고 현재는 25명의 농인 아티스트들이 핸드스피크에서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

핸드스피크가 이 세상에 농인 예술가와 농인 리더가 많이 세워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꿈꾼다.

2. 전문적인 농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누군가와 예술로 소통하려면, 예술로 표현하기 전 그의 삶에 진짜 투입되어야 한다.”

-참여 강사 J씨-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편견 때문에 배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었다,

*“핸드스피크라는 단체를 알게 됐고, 다시 **배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참여자 K씨-

끼와 열정이 많음에도 ‘장애’라는 이유로 부족했던 예술교육의 환경과 시스템의 부재가 곧 농인 아티스트들에게는 기회 부족으로 연결된다. **농예술 교육은 농인 예술가를 꿈꾸는 농인 청년들의 출발점**이다. 예술로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많은 장벽에 부딪혔지만, 이것이 농인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 이상 편견과 싸우다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3.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인식 변화

농인들이 사회에 진출한 경험이 적다보니,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기관에서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역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처음 접해보는 전문 용어와 기존 수어에 없는 예술 관련 용어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해야하는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했다. 하지만 요즘은 수어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 덕분에인지 행사에 초대되면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농인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세종문화회관에 초청되었을 때, SBS 저녁8시 뉴스에 핸드스피크가 소개되었다.

*“10년을 넘게 기자생활을 했는데,
기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어통역을 넣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날 뉴스에는 핸드스피크 기사에만 수어통역이 있었다. 기자님 한 분의 인식 변화와 행동으로 8시 저녁뉴스 송출 방식이 바뀌었고, 많은 농인·청각장애인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았다. 그리고 핸드스피크가 활동해줘서 고맙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

4. 농인 아티스트들의 임파워먼트 강화

“핸드스피크에 오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핸드스피크 이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전국에 핸드스피크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무대에 선 제 모습이 행복해 보여서 눈물이 나셨대요.”
“꿈만 꾸던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 자꾸 소름이 끼쳐요.”

농인 아티스트들은 핸드스피크 안에서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도전에 대해서 즐겁게 의견을 나눈다.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행복해하는 농인 아티스트들의 표정과 삶이 증명한다. 그리고 더 많은 농인 아티스트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5. 세계 농예술 페스티벌, 글로벌 시장 진출 ‘핸드스피크’

2년에 한 번씩 프랑스에서는 공연, 전시, 퍼포먼스, 컨퍼런스, 영화제, 박람회, 파티 등 세계 농예술 페스티벌이 열린다. 각 국의 예술을 선보이며 주빈국을 선정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전세계 청각장애·농인들과 청인들이 와서 함께 즐긴다. 10회를 맞이해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Festival Clin d’Oeil 2022’ 홈페이지가 오픈되었고, 소름끼치는 일이 벌어졌다. 핸드스피크가 초청되면서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었고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띄어져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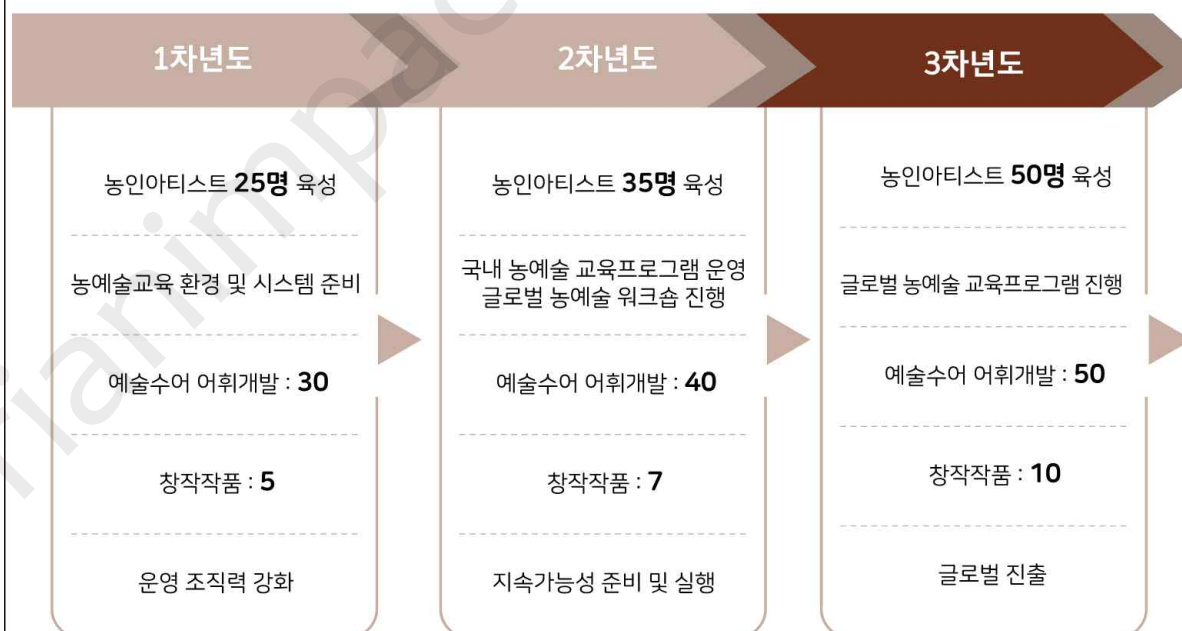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의 더 많은 농인 아티스트들과 농예술을 세계 무대에서 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

지원금이 주로 사용될 분야와 사업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기술

1. 전문적인 농예술 교육시스템 운영

- 1) 운영 조직력 강화 : 전문적인 인력 배치로 운영 조직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2) 예술 전문강사 섭외 : 농문화와 농인을 이해하는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 3) 전문 수어통역사 성장 및 배치 :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 통역사를 배치함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한다
- 4) 예술 수어 어휘 개발 : 농인 아티스트들의 문화예술 활동들이 많이 없다보니, 한국수어사전에 없는 예술 관련 수어 어휘들을 개발하고 사용함으로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진행한다
- 5) 농인 아티스트 발굴 : 공개적으로 만 18세이상 농청년들을 모집하여 예술교육을 통해 농인 아티스트를 발굴한다
- 6) 글로벌 예술 워크숍 진행 : 해외 유명 농인 아티스트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예술 작업 방식과 작품을 공유하며 글로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 7) 글로벌 농예술 교육프로그램 진행 : 해외에 농인 청년들이 핸드스피크의 실력을 보고, 한국으로 인턴쉽 문의를 하는 중이다. 해외 농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예술 문화를 알려주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글로벌 농예술교육의 기반을 다진다.



[그림 6] 단계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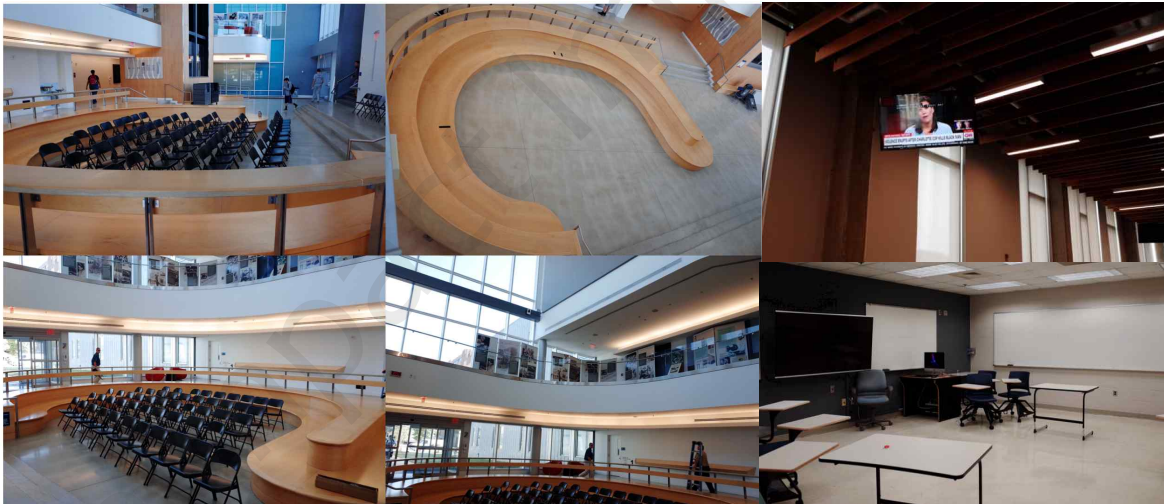
2. 수어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수업은 워크숍(공연발표)으로 진행하여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돕고 콘텐츠 기획/제작 과정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게 한다

3. 유니버설 교육 환경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농인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 천장 조명 (박자 및 시작, 포인트 신호로 활용할 수 있도록)
- 나무바닥 (발로 쿵쿵 진동을 통해 사람을 부르거나, 박자 알려주기 위한 목적)
 - * 대리석 바닥이면 진동이 울리지 않음
- 지상, 투명유리 및 엘리베이터 (재난에 대비하여, 외부공간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 4면이 거울인 작업 환경 피하기 (수어로 소통하는데 방해됨)
- 디지털 벨+사이렌 (출입을 알리기 위함)
- 대형 이동 모니터 (청인 전문가와 소통 시, 전문용어는 문자통역을 이용)
- 예약 어플, 앱 (전화, 음성소통 보다는 시각적 소통 방법을 이용)
- 교육시스템 안내를 위한 수어 안내 영상
- 원형, ㄷ형 테이블 형식 (어디서도 수어가 잘 보이도록)



[그림 7] GALLAUDET 갈로뎃대학교 (워싱턴 D.C.)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농인 청년들이 전문적으로 예술교육을 받고, 국내 최초의 농인 맞춤형 시스템 구축과 예술 교육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다면 마음껏 꿈을 꾸고 실현시키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의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1. 접근성 확대 및 경제적 성과

연습을 포함한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보상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매년 아티스트 공개 오디션을 통해 농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해왔으나 조직 인력의 전문성, 지역적 한계, 수어예술 어휘 부족, 농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시스템 부족 등 많은 한계들이 있다. 청각장애·농인에게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농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경험 및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역량을 가진 청각장애·농인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예술 전문직 일자리를 제공한다.

임팩트 그라운드의 지원을 통해 농예술 교육의 맞춤형 시스템 및 환경 구축이 된다면, 농인 청년들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아티스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2022년도 전속 계약된 농인 아티스트는 총 25명이며, **2025년까지 농인 아티스트 50명과의 전속 계약을 목표로 한다.**

2. 사회통합의 성과

그동안 시민들이 쉽게 접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농예술 댄스와 뮤지컬 공연을 대중적인 공연으로 발전시켜 관람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수어 문화예술 콘텐츠인 수어랩, 수어뮤지컬, 수어연극, 수어뮤직비디오, 수어영화 등은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 **2025년까지 500만 명 이상의 농인/청인 공연 관람객에게 수어 공연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 상품 콘텐츠를 개발 및 유통 판매함으로써 수어에 대한 인지도와 수어 활용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접근성과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쳐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킨다.

3. 사회생태계 및 환경적 성과

수어가 공용어로서 사회문화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한다. 공용어로 지정되었으나 사회적 공감대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수어와 청각장애·농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농인 아티스트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와의 연결점 역할을 하며 사회생태계를 활성화 시킨다. 핸드스피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방송통신위원회, KBS,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기획, 무료 공연, 행사 참여, 정책 토론 등으로 청각장애·농인의 문화예술 활동 소외와 참여 기회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건강한 사회생태 환경을 조성한다.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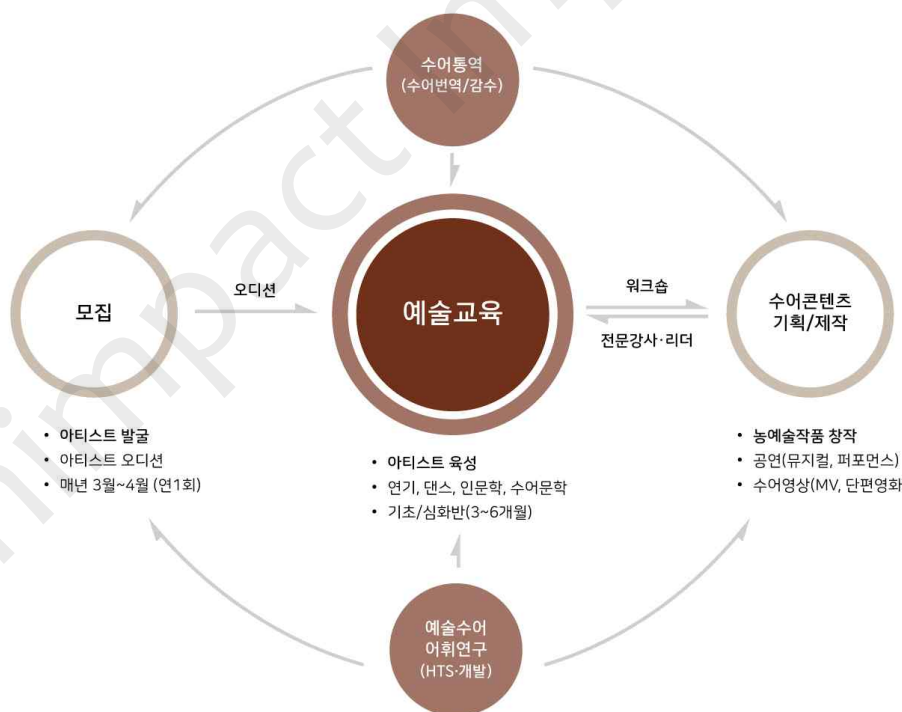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Scale-Up

운영조직의 세분화를 통해 조직력 강화, 전문 수어통역사 배출, 농인 아티스트 및 리더로 성장, 수어 어휘 개발 및 사용, 마케팅 역량 강화 등 농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활성화는 많은 농인 아티스트를 배출 할 것이고 그들은 많은 농아동 및 농청소년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농청소년이 단순히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막연한 꿈을 갖는 것이 아닌 농예술교육에 문을 두드리 는 것을 시작으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장소로 핸드스피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곳은 어쩌면 학원비는 있지만 수어통역비가 없었고, 예술학교에 입학했지만 수어통역이 없어 좌절했던 기존 농인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핸드스피크의 농예술 교육프로그램은 농인 선배 아티스트가 롤모델이 되어 농인 후배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이끌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그림 8] 수어콘텐츠 기획/제작 단계 스케일업

Scale-Out

온/오프라인 수어 콘텐츠 및 플랫폼 확장으로 청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청각장애·농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며, **국내 유일 농예술 전문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청각장애인 마다 청력의 정도가 다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전문가들은 무조건 큰 소리를 가져다가 스피커 앞에 앉히고 듣지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예술을 체험하게 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시혜적인 방식으로는 농문화와 농예술을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농인의 의한 예술이다. 핸드스피크의 농예술교육은 단순히 어떤 교육과 그 장소를 만든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모였을 때 시작된다. 그곳에서 나 혼자가 아닌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의 있다는 것은 자신이 농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한다. 자긍심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지금 이 사회와 예술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야기해야한다.

이렇게 고민해 온 시간들과 노력들이 실력으로 증명되었을 때, 전세계는 핸드스피크 아티스트들을 주목하며 열광했다. 핸드스피크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의 농인들을 대상으로 농문화를 제대로 담아낸 농예술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가며 꿈을 펼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1. 농예술교육 수어교재 개발 및 제작 : 수어대본, 수어설명, 음악악보 등
2. 예술 수어 어휘 개발 및 연구 : DB 구축
3. 온라인 농예술교육 진행, 국제교류 워크숍 진행 : 화상 수업
4. 수업 정보/ 예약 어플 개발
5. AR(증강현실) 기술 공연 : 2021 문화체육관광부 '사람 사이, 문화두기' 캠페인 선정
6. XR스테이지 융합 공연 : 2021 충남정보진흥원 콜라보
7. 음악 및 댄스 실감가시화 기술 개발 : GISTx핸드스피크 연구진행중

* **2021 디지털포용기업 선정 '핸드스피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어를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농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수어의 대중화를 확산 시킴